

6월 14일 본문

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다

핵심 구절: “한나가 임신한 지 한 해가 지나서
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으며 말하기를
‘내가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’라고 하였다.”

사무엘상 1:20

선정된 성경 구절:

사무엘상 1:1-28; 2:1-11

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,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그에게는 페니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. 페니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. 매년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으며, 제물의 일부를 가족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.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두 배의 몫을 주었다.

그러나 페니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조롱했고,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해마다 계속되어 한나는 울며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.

마침내 어느 해,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다. “전능하신 주님, 주님께서 이 종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며, 이 종을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,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바치겠고,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.” 사무엘상 1:1-11

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. 이듬해에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(사무엘상 1:19, 20). 아들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한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었다. 이는 “특별한 서원, 곧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서원”이었다. 이 서원의 일환으로,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외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,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다. 이 서원을 한 사람은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. (민수기 6:1-21). 사람이 나사렛 서원 아래에 있는 동안 내내, 그 사람은 “여호와께 거룩한 자”였다. 민수기 6:8

한나(Hannah)라는 이름은 “은총” 또는 “은혜”를 의미합니다.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“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,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

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,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.” (에베소서 2:8,9). 한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. 그녀는 곤란할 때 기도했습니다. 또한 자녀인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바칠 때처럼 감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. 사무엘상 2:1-11

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. “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,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며,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” (빌립보서 4:6,7).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두며, 기쁨의 마음을 품고, 그분의 약속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.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며, 그분의 섭리가 허락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“모든 일에 감사할”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:16-18

한나는 하나님께 큰 희생을 드렸습니다.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평생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며 살도록 바쳤습니다. 오늘날, 그리스도께 전념한 신자들도 이 현세 악한 세상의 “죽은 것들”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포함하여,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평생의 서원을

했습니다. 그들은 대신 “그리스도를 입음”으로써
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키워 나갑니다. 갈라디아서
3:27; 에베소서 4:24; 골로새서 3:10-17